

교환학생 수기

2010-2011 University of Huddersfield

이성계

교환학생 수기 마감일을 넘겨 제출하여 죄송합니다.

출국준비부터 영국에서의 생활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후배 교환학생들 물론 잘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앞으로 파견 될 교환학생들 모두 건강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Huddersfield 대학교에서 약 10개월간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크게 깨달은 점은 교환학생 신분으로서의 생활이 기대했던 만큼 낭만적인 것들로만 가득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각오를 새롭게 다질 필요를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설프게 생활하고 대충 공부했다가는 현지의 다른 학생들과 발맞추어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영어로 전공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고 유학목표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영국에 와서 처음 몇 달간 학교 및 주변 생활환경, 사람들 그리고 한국과 전혀 다른 그 곳 문화에 적응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처음 몇 달간의 적응기간이 빨리 지나가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끝내고 귀국 할 시점까지 현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파견될 교환학생 학우들은 스스로를 자신이 정한 불필요한 한계에 가두지 말고 먼저 치밀히 계획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행동하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생활 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의 가능성이나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생활을 자신을 한층 더 성숙하게 하고 일상의 성찰을 통해 자기개발의 박차를 가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저의 경우 파견기간의 절반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크게 들 정도로 쉽지 않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격한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공부할 수 있었던 경험은 지금은 저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큰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마다 시작할 때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가능하면 공부 외에 다양한 취미를 갖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 마다 기숙사 근처 공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였고 목요일엔 GAME 동아리 활동도 하고 가끔 주말에 교회에 가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학교나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 보다 사교활동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통한 직접적인 경험이 영어에 자신감을 갖고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스스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기피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므로 사회와 격리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도 영어공부를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친하게 지낼 친구를 많이 만들고 그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집에서도 수시로 현지 방송을 시청하고 라디오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BBC NEWS를 라디오로 잠이 들기 전까지 들었습니다. 점점 영어에 자신감이 생기면 전에 알지 못했던 일상에서의 색다른 재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지서 살다보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 자신만이 해결 할 수 있고 많은 도움이 필요하게 될 문제도 있습니다. 혼자서 풀리지 않는 문제에 고민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

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터놓고 진실 된 얘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친구 한명정도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정 힘들 때 스스로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도전하고 부딪쳐 보면 어떻게든 일이 풀리게 됩니다.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배우고 추억을 만들고 평소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면 절대 미루지 말고 해야겠다는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한 많은 경험을 할수록 미래의 자신을 강하게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 예전보다 한층 더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에게 큰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은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스스로 상황판단하고 결단하고 절제하고 신중한 행동을 해야 하므로 철저한 자기관리는 필요합니다. 주변의 어떠한 유혹에도 뿌리칠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현명한 가치판단을 해야 합니다. Huddersfield대학에 한국인 유학생은 극히 적습니다. 동양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중동국가출신 유학생들도 많습니다. 한국인이 적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고 지독한 향수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영어를 공부하는데 더할 나위없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중국인 학생들이 서로 자국민들끼리 어울리면서 중국말을 하는데 그들은 영어를 거의 쓰지 않으므로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외국인 학생들을 편견 없이 다양하게 사귀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영국친구들보다 비슷한 유학생 처지인 다른 국가 출신의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영국친구들은 물론 개인마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거리감을 두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미생활과 종교생활도 좋고 남는 시간에 돈을 벌고 싶으면 학교 주변에서 적당한 일을 구해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서 합법적인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지만 수입이 높더라도 불건전한 것은 피하고 학교 근처 PUB에서 맥주를 서비스 하거나 식당에서 일하는 것 등이 있지만 일하면서 크게 영어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 반복일이 많기에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할 시간에 여행을 다니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는 등의 다른 경험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Huddersfield는 West Yorkshire 에 있는 Town으로 영국연방의 지도상의 위치에서 거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 여행을 다니기에 정말 좋은 장소에 있습니다. Town Centre 에서는 전국으로 연결된 철도나 버스노선이 있고 항상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합니다. 맨체스터나 리버풀 런던과 같은 대도시와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가까운 곳에 1일 내에 잠깐 다녀올 것이라면 왕복티켓으로 발급받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티켓은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Huddersfield Town 의 물가는 서울의 물가와 체감상으론 비슷하지만 사람을 고용하는 인건비가 비쌉니다. Huddersfield에는 거의 모든 편의시설이나 상가가 Town Centre에 밀집되어 있고 번화가에는 수많은 다양한 상점들이 즐비합니다. 쇼핑하기도 좋고 극장에서 공연을 보거나 영화를 관람하기도 편리합니다. 축구경기장에는 축구나 럭비경기가 상시 열리고 대학생들은 교내 학생회관 등에서 특별히 할인된 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밤이 되면 사람들이 귀가하여 각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일몰 후 늦은 시간의 거리는 어둡고 한산합니다. 외국인을 노린 범죄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밤 늦게까지 거리를 활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이 순찰을 돌기는 하지만 제가 느낀 치안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고 불안 할 정도였습니다.

음식은 기름지고 대부분 영양가가 높고 고칼로리입니다. 한국처럼 대형 할인 마켓 체인이 많이 있으며 저녁에 폐점 전에 시간을 잘 맞추어 가면 신선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 등을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맛

에 맞지 않는 음식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도 영국음식이 맞지 않아 다른 이국적인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 했습니다. 영국도 거의 완전한 다문화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주변에 정말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이민자가 경영하는 식당이 많습니다. 물은 수도 물을 바로 마셔도 되지만 가급적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잘 조절해야 하고 꾸준히 운동을 해서 살이 찌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Town Centre 방향으로 올라가면 Greenhead Park라는 제법 규모가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달리기를 하기 좋게 되어있고 테니스코트와 농구장, 스케이트보드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 등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체육관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샤워실과 탈의실이 있고 복싱부터 스쿼시 태권도 쿵푸 유도 헬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인도를 따라 달리기를 할 경우 항상 자동차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주행 차선은 한국과 정반대이며 교차로에도 신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 판단으로 알아서 조심해서 횡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로를 가로지를 때 항상 좌우 모두 살피고 건너야 합니다.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영국은 공원과 같은 녹지가 주택가 근처에도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면서 기분전환을 하기가 좋습니다. 기숙사 근처 Castle Hill이라고 불리는 곳은 고지대라서 전망이 매우 좋기 때문에 가끔 답답할 때 찾아가면 좋습니다.

영국에 도착해서 학기등록을 마치고 학생증을 받으면 교내 여러 가지 시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생증은 도서관에서 책이나 각종 시청각 자료를 대여할 때나 건물을 출입할 때 필요 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재학증명서 같은 것을 받아서 가까운 은행에 계좌를 만드는 것이 좋은데 기숙사 같은 생활하는 곳에 많은 현금을 보관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계좌를 열어 예금해놓고 필요할 때 마다 출금해 사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처럼 신청 당일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은행 직원과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서 신청하면 수일 내로 각각 PIN 숫자가 담긴 우편과 은행체크카드가 재중 된 편지를 받게 됩니다. 휴대전화도 도착 후 가급적 빨리 개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과 TOP UP 요금 충전식의 사용방법이 있습니다. 여권은 비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잘 간직해야 하는 물품입니다. 평상 시 몸에 지니지 말고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 잘 보관 해 놓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분실 시 런던 시내 중심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도서관에는 분야별로 다양한 책들이 있고 학생증만 있으면 대출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중요한 알림이 있거나 공지사항을 보낼 때는 학생 개인별 메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메일은 일일 단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서관에서는 복사나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선 요금충전 후 사용 식이기 때문에 잔액을 확인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도서관에서는 학생이 신청 시 도서관 내 사용을 전제로 노트북을 빌려 주기도 합니다. 학교 수업이 대부분 토론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수업참여도가 높습니다.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수업 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교수님들로부터 학생들에게로의 일방향적인 수업이 아니라 세미나 식의 질문과 답변이 항상 오가는 수업이므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수업이 끝나고도 복습을 해야 합니다. 과제도 개별과제와 팀별과제가 있는데 팀별 할당된 과제는 교수 평가 후 결과를 공유하게 되므로 더 신경을 써 참여해야 합니다. 팀 과제 수행 시 단순히 참여만 하지 말고 가급적 주도적으로 활기차게 팀을 이끌어 많은 기여

를 하십시오. 수강신청은 1년에 한번이고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춘추학기의 2학기가 아닌 1년 단위로 수업을 받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적은 학년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한번 치르게 되는 시험성적과 제출한 보고서 결과를 종합해서 산출됩니다.

Huddersfield Town은 연중 볼만한 공연이나 축제들로 거리가 봄비기 때문에 특히 크리스마스, 할로윈, 이스터 때가 되면 거리에 나와 충분히 분위기를 만끽하면 좋습니다. 집에서 보다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에서 생활하다보면 한국에서의 사고방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고 새로운 관점에서 상대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자신이 정한 특정 가치만을 고집하지 않아야 하며 범지구적 인류보편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협한 사고방식으론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영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여러 부류의 친구들을 두루 사귄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전통기념품을 사가지고 가서 영국에서 새로 사귀게 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친구들을 초청해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며 서로 어울리면 금방 허물없이 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꾸밈없이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면 상대도 순수하고 진실 된 마음으로 저를 대하고 서로의 진심이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솔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 봐 주지 않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순천향인들 모두 정해진 시간 유익하게 보내며 보람 있는 유학생생활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귀국해서 지난 날 돌이켜 생각했을 때 무언가 아쉬운 생각보다 성취감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생활하고 생각한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